

질 높은 교사 양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김문규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전국교육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의 기초를 다지는 우수한 초등학교 교사 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하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인 교육대학교는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핵심기능 중 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조직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교육대학교의 역할과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우리나라 교육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 머리말

새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번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의 충실성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현재보다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의 기로에서 정권을 인수받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60년대 초에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2007년 말 현재 교역규모 면에서 연간 7,000억 불을 상회하고 2,500억 불이 넘는 외화를 보유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각기 그 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주 기능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고 신지식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온 한국의 대학은 앞으로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이며, 이 점은 초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교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초등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에 몇 마디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한다.

II. 교육대학교의 역할과 현주소

대학의 주 역할은 고등교육에 있고, 고등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는 지식경제로 압축되는 세계경제의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우수한 고등교육체계를 갖춘 국가가 세계경제의 리더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약 31조 원으로 정부예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고등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도 스위스 IMD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 관련 공공지출은 지표조사대상 55개 국가 중 29위에 랭크됨으로써 경제규모와는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한편 2007년 전국 11개 교육대학교의 국고지원 예산은 1,380

억 원 정도로 1개 국립 종합대학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는다. 재정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대학교의 시설들에 대해 대학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교육대의 강의 환경은 부설 초등학교보다 못하고, 부설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최상의 교육을 추구해야 할 교육대학의 특성화가 가능하겠으며, 글로벌시대 국가를 이끌어 갈 우수한 교사를 길러 낼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는가. 교육대학교는 배출되는 인력이 대부분 교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고등교육기관과는 달리 대학발전을 위한 동창회 기금모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정부 지원에 의한 교사 양성기관이라는 일반인의 인식 때문에 종합대학교와는 달리 기부금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 지원금과 저렴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는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핵심 기능 중 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조직이다. 교육활동은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교육대학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획기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Ⅲ. 대학교육의 특성화와 교육대

지식기반사회에서 도래한 오늘날에는 고등교육기관들이 문어발식 조직과 학문체제로는 더 이상 사회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

특성화 전략은 분야별·지역별 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특수 목적하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육대학은 정부가 지향하는 대학교육의 특성화 전략에 아주 부합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교사 양성이 중등교사와는 달리 교사 양성정책에서 성공한 것은, 바로 설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수 목적을 유지해 오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우수교사에 대한 요구와 교육대학교에서의 질 높은 교육을 통한 교사 양성이라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성화를 표방하면서 대학 간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라는 대원칙에서는 적극 공감은 간다. 그러나 이와 함께 특성화가 잘 유지되고 있는 교육대학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글로벌 교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글로벌 교사’ 양성을 위해서 정부가 장기적인 투자를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점은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하나로 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Ⅳ.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초등교사 양성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질 높은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교육대학교의 교육목적은 앞에서 언급된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이 점은 새 정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과 함께 필자는 교포자녀 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500만 명이 넘는 해외교포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이기에 교포와의 유기적인 관계지속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번 부산의 BEXCO에서 개최된 세계 한상(韓商)회의는 세계화 경제 추세에 발맞춘 시의성이 적절한 회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교육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500만 해외 교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다. 물론 교민의 2~4세들이 현지화에 성공하여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각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분포해 거주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교민들이 한국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관심을 가질 일이지만, ‘교육’과 관련된 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여 필자는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라는 점에서 우선 언어권별 교민 분포도를 감안하여, 정부 비용으로 대학 입학 연령의 교포자녀들을 교대에 정원 외 입학시켜 졸업 후에 현지의 교포 초등학교 혹은 이에 준하는 교포 교육기관으로 복귀하여 어린이들을 교육하도록 제안한다. 교포자녀의 모국어가 서툰 경우에는 국내 대학이나 교대 부설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한국어 학당에서 일정 기간 교육한 후 입학시키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정책은 한국인의 정체성확립이라는 면은 물론, 체계적인 교민교육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해외 교민과 모국과의 유대감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V. 맺는말

인간 삶의 각 부분에서 세계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가 있다.

교육대학교는 교육자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춘 능력 있는 교사를 양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대학교는 나름대로의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고 그 토대 위에서 글로벌 교사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한 특성화 유지라는 점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책무와 아울러 정부는

교민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교민 사회에 대한 교육 투자도 필요하지만, 우선 적령기에 있는 교민 자녀를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대학교는 교포자녀의 정원의 입학을 통한 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이들이 교민사회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점과 아울러 한국의 대외자산인 교민사회와의 유대감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약·력

김문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위원과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원연수원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전국교육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능력 본위 개입이 체육 교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 다수가 있다.